

“남편 힌츠페터에게 ‘광주’는 과거 아닌 되살아나는 역사”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 여사 내한

“영화 ‘택시 운전사’ 보고 감정 벅차 잠 못 이루
남편이 얼마나 용감한 사람인지 알게 돼”
“각별한 한국사랑에 ‘감염’... 영화, 다큐보다 사실적”

“영화를 보고 너무 감정이 벅쳐서 잠을 못 이루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이 영화를 함께 못 봐서 너무 아쉬워 따름입니다.”

영화 ‘택시운전사’ 속 실제 모델인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1937~2016)의 부인 에델트라우트 브람슈테트(80) 여사는 남편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혔다.

10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국내 취재진과 만난 그는 전날 영어자막으로 ‘택시운전사’를 관람한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은 듯했다.

남편 역사를 맡은 크레취만에 대해서는 “남편과 외모도 닮았고, 정적이면서도 의지가 강한 듯한 동작이나 표정도 비슷했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지난해 힌츠페터가 숨지기 직전까지 그의 곁을 지킨 브람슈테트 여사는 남편의 각별한 한국 사랑에 자신도 ‘감염됐다’고 했다.

“남편에게 한국, 특히 광주는 과거의 이야기라 아니라 항상 기억으로 되살아나는 역사였습니다. 남편의 전 인생에 걸쳐 광주는 빼놓을 수 없는 특별한 사건이었죠.”

브람슈테트 여사와 힌츠페터는 초등학교 시절 같은 반 친구 사이였다가 독일 쾰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재회했다. 브람슈테트 여사는 이후 마취과 전문의가 됐지만, 힌츠페터는 2학기 정도 의학을 전공하다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계기로 카메라 기자

‘5·18 다큐’ 어떻게 나왔나
80년 9월 DJ 사형 선고에
3일간 편집 독일 본사로 보내
“방송 안되면 사직” 으름장

로 진로를 바꿨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난 것은 2002년. 브람슈테트 여사가 병원 근무 마지막 날 응급실 당번을 하고 있을 때 힌츠페터가 응급실로 실려 오면서다. 의사와 환자 사이로 우연히 재회한 두 사람은 6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부부의 연을 맺었다.

독일 제1공영방송 ARD-NDR 카메라 기자가 된 힌츠페터는 1980년 일본 특파원 시절 광주로 들어와 목숨을 걸고 광주의 참사 현장을 기록, 전 세계에 알렸다. 그해 9월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죄로 사형판결을 받자 이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동료와 함께 5·18에 대한 45분짜리 다큐멘터리 ‘기묘에 선 대한민국’을 만들어 한국 군사 정권의 폭정을 고발했다.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아 남편은 진실을 알려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쿄 특파원 때 광주를 촬영했던 원본을 3일 밤낮으로 편집해 독일 본사에 보냈죠. 그러나 방송국에서 쉽게 편성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방송이 안 나가면 그만두겠다고 반발해 다큐멘터리가 방송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생전에 힌츠페터는 자신의 삶을 다룬 영화 제작을 사양하다가 고심 끝에 허락했다고 한다. “남편은 한 나라의 역사가 땅의 세계로 잊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영화로 만들어지면 (후대가) 역사를 배울 때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어 시청각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했죠.”

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나는 해야만 했다’ 라고.”

남편은 광주로 맺은 한국과 인연을 평생 이어갔다. 1986년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거리 시위를 취재하다 사복경찰들에게 심하게 맞아 크게 부상했다. 당시 목과 척추에 충상을 입어 7시간 동안 목디스크 수술을 받기도 했다.

1995년 기자회견에서 은퇴한 그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현장을 지켰던 치열한 기자정신이 국민의 양심을 깨워 이 땅의 민주화를 앞당겼다’는 공로로 2003년 11월 제2회 송건호연료상을 받았다. 지난해 1월 별세한 힌츠페터의 머리카락과 손톱 일부는 ‘광주에 묻히고 싶다’던 유지에 따라 망월동 5·18 구묘역에 안치됐다.

2003년부터 여덟 번째로 한국을 찾은 브람슈테트 여사는 백백한 일정 때문에 이번에는 남편의 유해 일부가 안치된 광주를 찾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택시운전사’가 개봉 9월째 600만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영화의 흥행과 함께 힌츠페터에 대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하자, 브람슈테트 여사는 “감사하다”고 거듭 말했다. /연합뉴스

전열 정비 마친 檢, ‘적폐 청산’ 사정 劍 빼드나

‘문무일호’ 인사 완료...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사단 입성
국정농단 재수사·국정원 정치 개입·방산비리 등 주목

법무부가 10일 검찰 고검 검사(지검 차장·부장 및 지청장)급과 평검사의 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권 초기 각종 수사를 책임질 ‘문무일호(號) 검찰’의 진용이 완성됐다. 광주지검 차장 검사에는 윤영준(사법연수원 24기·부산) 전 통영지청장이, 신설된 광주지검 인권감독관에는 정진기(27기·담양) 전 안양지청 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22면)

법무부는 “한동훈(27기)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 2팀장(박찬호(26기))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2차장으로 발령내는 등 고검 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17일자로 단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일선 지검의 차장·부장급과 지청장급을 대상으로 한 중간간부 인사는 작년 1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이뤄졌다. 중간간부 정기 인사는 통상 매년 1월 이뤄지지만, 작년 가을부터 정국을 뒤흔든 ‘최순실 게이트’ 사건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정권 교체 등의 여파로 반년 넘게 인사가 미뤄졌다.

법조계에서는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급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마무리되면서 검찰이 전열 정비를 마치고 국정농단 재수사,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채비를 마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이자 중요 특수·공안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윤석열 지검장과 함께 일했던 중간간부들이 대거 입성해 대대적인 사정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1호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전열을 정비한 검찰이 강력한 사정 드라이브에 나설 전망이다. 적폐 청산과 연관된 검찰의 과제로는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추가 수사가 첫 번째로 손꼽힌다. 그간 특검과 검찰의 수사를 받았으나 처벌을 피해온 인물이나 기업 등을 다시 살피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민정·정부·정책조정수석실 등이 생산한 문건들을 무더기로 발견해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등에 사본을 넘긴 상태다. 공개한 내용에는 청와대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에 도움을 주려 한 정황, 지난해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한 정황,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무력화를 시도한 정황, 민간 기업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색 방식의 ‘좌편향’을 수정하려는 정황 등이 담겼다. 향후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재수사에 가까운 새로운 수사 줄기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 내용이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진행하는 과거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도 대대적 수사로 이어질 중요한 ‘뇌관’으로 손꼽힌다. 오는 30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앞둔 상황에서 검찰은 신속히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 국정원의 전반적인 정치개입 의혹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의 핵심 인사들에게까지 사정의 칼날이 향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가 진행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도 ‘방산비리’를 고리로 이전 정부 고위층을 겨냥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탈권위·소박한 ‘문재인 손목시계·찾잔’ 공개



청와대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인이 들어간 손목시계와 찾잔을 공개했다. ‘문재인 손목시계’는 남·여용 한 쌍이 한 포장 상자에 들어있다. 몸체 중앙 윗부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아랫부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청와대는 “고급함과 권력의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탈권위적이고 소박하되,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했다”고 문 대

통령 시계의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다. 또 기존 대통령 시계와 달리 대통령 표장과 시계바늘, 시간 표기(Index)에 황금색이 아닌 로즈골드색을 적용해 관 윗부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아랫부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청와대는 “고급함과 권력의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탈권위적이고 소박하되,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했다”고 문 대

통령 시계의 디자인 콘셉트를 설명했다. 또 기존 대통령 시계와 달리 대통령 표장과 시계바늘, 시간 표기(Index)에 황금색이 아닌 로즈골드색을 적용해 관 윗부분에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 아랫부분에는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문 대통령의 사인이 새겨졌다. 시계 뒷면에는 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 ‘사람이 먼저다’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다. 청와대는 “고급함과 권력의 상징적 의미에서 벗어나 탈권위적이고 소박하되, 혁신적인 변화를 지향했다”고 문 대

청와대는 대통령 시계와 함께 찾잔과 커피잔도 제작했다. /임동욱기자 tuim@

해남 대흥사 녹차, 청와대 입성한 까닭은? 문 대통령 고시공부하던 곳... ‘차 맛에 매료’

해남 대흥사에서 재배된 녹차 잎으로 만든 녹차가 청와대에 입성했다. ‘해남 대흥사 녹차’는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부터 모습을 보였다. 당초 ‘우리 차를 알리자’는 취지로 녹차가 준비됐지만 해남 대흥사는 문 대통령과 각별한 인연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1978년 아버지를 여읜 문 대

령이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해남 대흥사에서 머물렀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자서전 ‘운명’에서 “그곳에서 우리 차 ‘작살차’를 배웠다”며 “대흥사 일지암은 ‘동다송(東茶頌)’으로 우리 차의 맥을 되살리고 차를 매개로 다산 정약용·추사 김정희와 교류했던 초의선사가 계셨던 곳”이라고 설명했다. ‘동다송’은 조선 승려 의순이 지은 책으로 다도를 시로 설명한 글이다. 의순

은 호인 ‘초의(草衣)’를 따서 초의선사라고 불린다.

또 문 대통령은 “암자의 주지 스님(茶道)을 배웠다”고 언급하며 “입안의 차향이 사라질까 아쉬워 담배를 피울 수 없을 정도였으며 그때의 차 맛에 매료돼 지금까지 우리 차를 즐기고 있다”고 각별한 애정을 보이기도 했다.

해남 대흥사 녹차를 제공하는 청와대 직원은 10일 회의에 참석한 참모들에게 “4월 무렵에 따는 첫 잎으로 만든 ‘첫물차’라며 “세 번에 나눠 따라 마셔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동욱기자 tuim@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매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5기)	광주교육대학교(16기)
개강일시	· 화요일 오전반: 2017. 9. 5.(화)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전반: 2017. 9. 9.(토) 09:10 (특급반)	· 목요일 오전반: 2017. 9. 7.(목) 09:10 (중급반) · 금요일 오전반: 2017. 9. 8.(금) 09:10 (초급반) · 토요일 오후반: 2017. 9. 9.(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8. 1(화)~9. 9.(토)	2017. 8. 1(화)~9. 9.(토)
수업기간	2017. 9. 5.(화)~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9. 7.(목)~2018. 2. 9.(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 광주은행:148-107-307803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 국민은행: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별 가능 ·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 1.2년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취득 기회부여 · 각 현문학회 강사 추천 및 학원개별 가능 · 각급학교별과 후 교육장서 추천 ·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문 의:062)950-3582~4 ·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 문 의:062)520-4243 · 지도교수(선병공):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 모집기간: 2017년 8월 25일(수) ~ 2017년 9월 7일(목)
· 교육기간: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22일(금)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jeong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8월 25일(금)
· 교육기간: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 수강료: (한학기) 20만원 (예금주: 순천대평생교육원) 농협 643-01-007060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lilelong.sunch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